#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과 가정생활건강성*

## - 서울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

# The Level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Family and the Strengths of Family

## - Focusing on the Married Women in Seoul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 수 박미석
숙명여자대학교 숙명리더십개발원
조교수 김경아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Park, Mee So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stitute for Global Leadership
*Assistant Professor* : Kim, Kyoung A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was to examine the married women's "Family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I" which is a new strategy for developing the strength of family.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ree hundred married women who have a child or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school, based upon relationship. The main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he level of the married women's "Family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I" tended to be relatively high and they were good at charismatic leadership among sub-dimension of "Family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I". Moreover,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lability and social support turned out to be most influential background variables. Second, the score for the strengths of family that is recognized by the married women appeared to be more than average. It seemed that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lability, social support, and monthly gross family income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Indeed, the result of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made a comparatively high contribution to the married women's strength of famil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married women's leadership development is a main source of maintaining healthy family.

**주제어(Key Words):** 가정내 변혁적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family), 가정생활건강성(Strengths of family)

Corresponding author: Kyoung-A Kim, Institute for Global Leadership,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yochangwon-Gil 52, Yongsan-Ku, Seoul, Korea Tel: 82-2-710-9899 Fax: 82-2-2077-7126
E-mail: kakim@sookmyung.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4-BS0030)

## I. 서 론

최근 한국가정은 IMF의 극심한 재정적 역경을 이기고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다. 가정내 위기상황은 가족의 갈등을 고조시키거나 가족의 해체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부의 부정적 스트레서(stressor)가 오히려 가족성원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때 가족간의 심리적 일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가정을 이끌어간 가정관리자의 역량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건강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는 이혼율과 위기가족의 증가 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패러다임의 가정관리전략이 요구된다. 조직성원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고 공동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휘되는 하나의 단위(unit)라는 측면에서 사회조직과 가정구조는 일맥상통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 물론 가족의 특성상 사회조직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측면은 간과할 수 없지만, 오히려 가정환경이 조직환경보다 헤드십(headship)이 아닌 리더십(leadership)의 관계가 강조되어야하는 인간관계의 구성인 만큼 이에 대한 개념적 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그 동안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직의 향상이나 목표달성 등을 촉진시키는 개념으로서 조직행동 분야에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의 유사성과 특징을 고려할 때 가정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의 연구는 가정생활건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기저로 탐색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리더가 아닌 상호 수평적인 부드러운 리더십을 요구한다. 리더십은 생득적 능력이 아닌 누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역량 중의 하나이다. 가족구조 또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계에서 탈피하여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 정립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가정을 경영하는 리더로서의 리더십 함양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다시 말해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가족성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필요하며, 가정경영의 일차적 책무를 맡고 있는 주부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지닌 리더십 발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리더십에 대한 접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가정리더십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가정리더십의 양적연구(Galbraith, 2000) 및 가정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성(김경아, 2005)이 검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실정에 맞게 가정관리자인 주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양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생활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서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의 역량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21세기 효율적인 가정경영전략을 위해 가정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자질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일련의 가정문화의 질과 긍정적인 가족관계 향상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리더십이란 조직 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리더십의 연구분야는 기존의 특성이론이나 행동이론, 상황이론 등 통념적인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변혁적리더십이다. Downton(1973)이 최초로 용어를 사용한 이후, Burns(1978)를 거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Bass(1985)에 의해 비로소 정교화되고 실증적인 학문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는 개개인을 변화시키고 장기간의 조직목표와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의 가치에 관심을 둠으로써, 추종자들로 하여금 개별적 목표달성에 집착하기 보다는 조직의 사명과 비전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부하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거나 자극을 줌으로써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를 달성하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리더십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하므로 연구대상을 달리한 관련연구들을 포함시켜 변혁적리더십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Bass(1985)는 카리스마(charisma), 개별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지적자극(intellectual stimulus)으로 구성된 다요인리더십질문지(MLQ I: Mu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를 개발함으로써 변혁적리더십 연구의 실증적 토대를 제시하였다. 이후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1990)는 비전설정, 솔선수범, 조직목표의 수용조장, 높은 성과기대, 인간적 지원, 지적 자극 등을, Avolio, Bass & Jung(1999)은 카리스마와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 등을, 권인탁(1995)은 카리스마, 개별적 관심, 지적 자극, 감화적 행위, 협동적 문화조성 등을, 가정의 맥락에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미석과 김경아(2005)는 카리스마, 개별적고려, 지적자극 등을 각각 변혁적리더십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자들의

개인적 관점에 따라 변혁적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다양한 것은 변혁적리더십이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Podsakoff *et al.*, 1990). 기존의 리더십 연구는 대부분 조직적 측면에서 변혁적리더십이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구성원의 일체감 강화와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변혁적리더십이 리더와 부하 간의 경제적 교환개념이 아니라 리더의 개인적 가치와 믿음에 뿌리를 두어 상호간의 신뢰감과 존중감을 통한 인격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니만큼 혈연관계로 이어진 가정으로의 치환에도 매우 적합한 리더십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공통적인 특성으로 검증된 카리스마, 개별적고려, 지적자극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의 개념을 정의내리고자 한다.

첫째, 변혁적리더십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개념인 카리스마는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비전창출과 제시, 이상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변인은 동일차원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Bryman(1992), Shamir, House, & Arthur(1993)의 견해에 따라 하나의 요인으로 다루어도 무리가 없으므로 단일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영감적 동기부여란 격려를 통해 조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동으로 분발고취라 명명하기도 한다. 비전제시 및 창출은 조직원들의 개인적 가치와 관심사를 집단이나 조직의 관심사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Bass, 1985)으로 공유된 비전을 개발시키는 것은 변혁적리더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인 중의 하나이다(Jung & Avolio, 2000). 또한 이상적인 영향력이란 리더가 조직원의 신뢰나 믿음, 존경을 받고 있는지 역할모델로서 행동하는지의 여부를 가리킨다. 특히 신뢰는 리더십 과정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Kouzes & Posner, 1995). Bennis와 Nanus(1985)는 비전 그 자체가 명확하고 매력적이며 달성 가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제시한 리더가 조직원들에게 믿을 만하며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경영의 주최자인 가정관리자가 가족원 간의 감정적 연대감을 촉진시켜 주고 신뢰할만한 뚜렷한 비전을 통해 가족원들을 동기부여시키는 카리스마를 지닐 때, 개인 및 가정의 성장과 행복이 강화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개별적고려란 부하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을 통해 부하들의 독특하고 이질적 욕구를 인정, 수용하며 개별적 견지에서 도전적인 과업과 권한이양을 함으로써 부하들의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리더의 행동을 말한다(Podsakoff *et al.*, 1990). 이는부하들의 자아이미지를 고양시킴과 더불어 욕구충족을 통해 동기부여수준을 의미있게 변화시키며 부하들의 능력을 발달시킨다. 즉 가정관리자는 가족원 개개인의 역량에 따른 개별적인 역할기대와 관심, 배려를 통해 가족원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격려와 추가적인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셋째, 지적자극이란 감정적인 자극에 의한 즉각적인 행위변화보다는 오히려 믿음과 가치, 상상력과 사고, 그리고 문제해결과 문제인식에 있어 부하를 변화, 자극시키는 리더의 행동들을 의미한다. 이는 부하들로 하여금 기존에 직면해 오던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합리적 틀을 뛰어넘어 보다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다(Podsakoff *et al.*, 1990). 이처럼 변혁적 리더의 사고는 예방적이며 아이디어 창출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다. 또한 조직원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도록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각의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촉진시킨다(Bass, 1985). 따라서 지적자극은 가정을 경영함에 있어 지녀야 할 강력한 임파워먼트 요소로서, 가족구성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보다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처하여 기대 이상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정관리능력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가정내 변혁적리더십(FMLQ I)이란 가정 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력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 2. 가정생활건강성

건강의 사전적 의미는 협의적(挾義的)인 개념으로는 단순히 질병이 없고 튼튼함을 의미하나 광의적(廣義的)인 개념으로는 신체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Well Being)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2004). 따라서 가정생활과 건강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가정생활건강성은 가정생활과 건강 총합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특성을 가족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수준을 의미한다(김경아, 2003).

서구에서 비롯된 건강한 가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가족치료적 입장에서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Otto(1962)의 연구를 발판으로, 1970년대 중반에는 치료차원이 아니라 예방 및 교육차원에서 정상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Stinnett & Sauer, 1977)가 시도되었으

며, 차차 사회학·심리학·가정학 등 인접학문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가족을 개방체계(Open system)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가정학적 측면에서는 건강한 가족체계를 개별 가족성원의 가치관 및 노력여하, 그 가족이 속한 확대 친족 체계나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Olson & DeFrain, 1994). 건강한 가족에 대한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Pratt(1976)는 가족원이 서로 다양하고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이루고 광역사회와 활발한 유대를 지니며 가족원의 개별성을 고무하고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문제해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가족으로 설명하였으며, Hennon(1985)은 활력이 있고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부부관계의 성장을 고무하는 가족으로 규정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접근(Zimmerman & Fetch, 1994)과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동양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기도 하였다(Xie, 1994). 반면 우리나라는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척도개발(어은주, 유영주, 1995; 이정우, 김경아, 2002)이후, 생활주기에 따라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련변인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정우와 김경아(2002)는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과의 관계를, 나아가 김경아(2003)는 예절수행의 세대전이를 통해 가정생활건강성을 위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정옥(1999)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이홍화(2004)는 생활예절수행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도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나비와 유영주(2001),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최정혜, 2004)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유영주, 오윤자, 이정연(1998)은 혼후 가정의 적응을 위하여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김경아(2005)도 가정생활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정리더십 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공통적으로 건강가정의 특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가족성원으로의 태도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과 같이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가정학적 접근은 가정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연구결과들을 밝혀냄으로써 역기능적인 가족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 Stinnett와 DeFrain(1985)이 '건강한 가족이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듯이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동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인을 탐구하는 것은 건강가정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 3. 관련변인 고찰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과 가정생활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달리한 관련내용들을 포함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심리적 변인으로 선정된 내외통제성은 셀프 리더십을, 사회적지지는 관계 리더십을 대표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 1) 결혼지속연수

결혼지속연수와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을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 여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가정생활건강성과 관련하여 양순미(2001)의 연구에서는 결혼지속연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최정혜(2004)의 연구결과, 결혼지속연수가 길수록 가정생활건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월평균가계총소득

가정내 월평균소득에 따른 주부의 리더십 수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월평균가계소득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은 선행연구(김경아, 2003; Xie, 1994)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가족의 건강성이 가족의 경제적 상태와 상관없이 건강한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잘 견뎌낸다는 연구(Brigman, Schons & Stinnett, 1986) 및 가족의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가족의 건강성이 낮다(Byles, Byrne, Boyle & Offord, 1988)고 나타난 연구 등 각각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 3) 학력

학력과 관련하여 기혼여성의 변혁적리더십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전무하였다. 다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원숙(2002)의 연구결과, 학력이 높은 간호사의 경우 상사의 변혁적리더십을 높게 평가한 반면,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문홍규(2002)의 연구에서는 조직원의 학력과 상사의 변혁적리더십 수준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된 견해를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학력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안선희, 김선영, 2004)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생활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어은주, 1996)으로 나타났다.

4) 취업여부

기존의 변혁적리더십의 연구가 대부분 조직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취업여부에 따른 변혁적리더십의 수준은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도록 한다.

한편 취업과 관련하여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폭넓게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안선희와 김선영(2004)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rigman *et al.*, (1986)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인이 그들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전업 주부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어은주, 1996)으로 나타나 일관성있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5) 내외통제성

내외통제성에 따른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을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호텔조직의 리더십에 대하여 연구한 Walker(1986)는 리더십의 기질 중 자기통제성(self control)을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였으며, 회사원을 대상으로 한 강신규(2001)의 연구결과, 조직원들의 내외통제성이 낮을 경우 상사의 변혁적리더십 성향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소희(2004)는 내외통제성이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인 만큼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셀프 리더십의 발달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내외통제성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을 연결시킨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6)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와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이루지지 않았으나 변혁적리더십의 특성을 지닌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긍정적 감정을 유도한다는 Gardner와 Avolio (1998)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주부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은 주위로부터의 사회적지지 자원을 많이 갖출 수 있는 기본 요소가 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지지와 가정생활건강성을 관련지어 볼 때 연구대상을 달리한 선행연구(김경아, 2003; 어은주, 1996; Antonucci, 1990) 결과, 둘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관성있게 나타남으로써 가족의 건강성은 개개인이 주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지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과 가정생활건강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및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여성의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이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및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이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및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등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다중공선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결과,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가정내 변혁적리더십(FMLQ I)에 관한 척도는 박미석과 김경아(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조직내 변혁적리더십의 측정도구인 MLQ(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다중요인 리더십 설문지)를 다룬 선행연구(Avolio & Bass & Jung, 1999; Bass, 1985; 1990; Bass & Avolio, 1990a; 1990b; 1992; 1993; 1995; Galbraith, 2000; Hater & Bass, 1988) 등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가정상황에 맞게 문항들을 재구성한 후 가정학과 리더십 전공자 5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의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기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에 대해 질적 면접을 통한 예비조사와 기혼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본 척도를 완성하였다. SPSS/PC WIN과 LISREL 8.0ver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영·조직상황과 동일하게 카리스마, 개별적고려, 지적자극 등 세개 하위영역 총 25문항이 추출되었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 가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변혁적리더십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2) 가정생활건강성의 척도는 유대감, 시간공유, 커뮤니케이션, 위기대처능력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김경아(2003)의 간추린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α = .93으로 나타났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 내외통제성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이정우와 김경아(2004)의 총 8문항을 사 용하였다. 이중 부정적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부호화하여 계산하였으며 5점 리커트 형으로 총점수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사회적지지는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지지 4차원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황윤경(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형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조사대상

본 연구의 표본인 기혼여성은 지역과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 추출방법을 통해 추출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가정내 가족구성원들 간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관계성에 기반하여 남편과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본조사는 2005년 5월 2일~11일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리서치 기관에 일임하였다. 서울특별시 25개구를 4개구(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로 나누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이를 숙지한 숙련된 면접원이 '개별면접 조사방법(face to face interview)'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불되었다. 그 결과 유효표본 총 300부가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PC WIN과 LISREL 8.0ver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최우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항목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외 빈도·백분율·평균·표준편차·T-test·F-test·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위계적 회귀분석 등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기혼여성의 연령대는 각 100명씩, 지역분포는 4개권에 따라 비례할당표집이 충실하게 지켜졌다. 결혼지속연수는 15년 미만 29.0%, 15~24년 35.7%, 25년 이상 35.3%였으며, 월평균가계총소득 또한 200만원 미만 5.3%, 200~300만원 미만 32.0%, 300~400만원 미만 40.0%, 400만원 이상 22.7%로 나타나 월평균가계총소득 311만3천원이라는 통계청(2006)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표본의 신뢰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학력은 국졸이하 3.7%, 중졸이하 7.3%, 고졸이하 51.7%, 대졸이상 37.3%로, 취업여부는 취업주부 43.0%, 전업주부 57.0%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의도적 표집이 이루어졌다.

### 2.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 및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경향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과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수준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우선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은 평균 3.80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6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주체적으로 가정을 잘 리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카리스마, 개별적고려, 지적자극의 순으로 기혼여성은 가정을 경영함에 있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변혁적·리더란 공유된 비전을 개발시키고(Jung & Avoli, 2000) 비전 실현의 동기부여를 위해 인내와 자기희생의 역할모델을 제공(Kouzes &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N = 300명)

| 변인 | 구 분 | 빈도 | % | 변인 | 구 분 | 빈도 | % |
|---|---|---|---|---|---|---|---|
| 연령 | 30~39세 | 100 | 33.3 | 지역 분포 | 동북권 | 84 | 28.0 |
| | 40~49세 | 100 | 33.3 | | 서북권 | 65 | 21.7 |
| | 50~59세 | 100 | 33.3 | | 서남권 | 87 | 29.0 |
| 결혼지속연수 | 15년 미만 | 87 | 29.0 | | 동남권 | 64 | 21.3 |
| | 15~24년 미만 | 107 | 35.7 | 월평균가계총소득 | 200만원 미만 | 16 | 5.3 |
| | 25년 이상 | 106 | 35.3 | | 200~300만원 미만 | 96 | 32.0 |
| 학력 | 초등학교졸 | 11 | 3.7 | | 300~400만원 미만 | 120 | 40.0 |
| | 중학교졸 | 22 | 7.3 | | 400만원 이상 | 68 | 22.7 |
| | 고등학교졸 | 155 | 51.7 | 취업 여부 | 유 | 129 | 43.0 |
| | 대학교졸 이상 | 112 | 37.3 | | 무 | 171 | 57.0 |

<표 2>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 및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경향

(5점 만점)

| 변인 | 하위영역 | 평균 | 표준편차 |
|---|---|---|---|
|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 카리스마 | 3.84 | .48 |
| | 개별적고려 | 3.80 | .51 |
| | 지적자극 | 3.75 | .52 |
| | 전체 | 3.80 | .44 |
| 가정생활건강성 | 유대감 | 3.92 | .52 |
| | 시간공유 | 3.80 | .56 |
| | 커뮤니케이션 | 3.62 | .53 |
| | 위기대처능력 | 3.60 | .57 |
| | 전체 | 3.73 | .45 |

Posner, 1995)하는 카리스마를 지녀야 한다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은 가정의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이념적 신념을 보여줌과 동시에 섬김의 사랑으로 가족구성원들을 리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은 전체적으로 평균 3.73(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5점)의 중간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내 비교적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유대감(3.92), 시간공유(3.80), 의사소통(3.62), 위기대처능력(3.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성의 하위영역 중 가족간의 유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경아, 2003; 어은주, 1996; 이정우, 김경아, 2002)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 가족은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등 세대를 초월하여 가족간에 강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현재 가족관계의 재정립과 재혼의 증가(통계청, 2006)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혁신적인 가정관리자의 전략과 자질이 요구된다.

### 3. 배경변인이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 및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 1) 배경변인이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의 배경변인이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3〉과 같다.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내외통제성(β = .35), 사회적지지(β = .31)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0%였다. 즉 기혼여성 스스로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지니고 주위로부터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을 잘 발휘함을 알 수 있다. 우선 내외통제성이 기혼여성의 변혁적리더십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남을 볼 때 기혼여성 스스로의 성격특성에 따라 변혁적리더십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는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인 경우, 고도의 자신감과 자신의 신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Yukl, 2002) 우월감과 자신감을 갖고 목표와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다(박혜숙, 1994)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내적통제성을 지닌 기혼여성의 경우 막연한 행운이나 기회에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인 비전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혁적리더십을 발휘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변혁적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주위로부터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가 곧 관계 리더십의 바탕으로 작용한다고 사료된다. 즉 리더십의 특성이 독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시너지 과

<표 3> 배경변인이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미치는 영향

| 배경변인 \ 종속변인 | |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 | | | | | | |
|---|---|---|---|---|---|---|---|---|---|
| | | 카리스마 | | 개별적고려 | | 지적자극 | | 전체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사회인구학적 변인 | 결혼지속연수 | - | - | - | - | .01 | .13* | - | - |
| | 월평균가계총소득 | - | - | - | - | - | - | - | - |
| | 학력 | - | - | - | - | - | - | - | - |
| | 취업여부 | - | - | - | - | - | - | - | - |
| 심리적 변인 | 내외통제성 | .30 | .25 | .43 | .33 | .35 | .26*** | .36 | .35*** |
| | 사회적지지 | .46 | .42 | .34 | .29 | .28 | .24*** | .35 | .31*** |
| 상수 | | 1.07 | | 1.04 | | 1.06 | | 1.24 | |
| Adjusted R2 | | .31 | | .26 | | .16 | | .30 | |
| F | | 65.86*** | | 53.06*** | | 20.03*** | | 64.68*** | |

*p < .05 ***p < .001

<표 4> 배경변인이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 배경변인 | | 가정생활건강성 | | | | | | | | | |
|---|---|---|---|---|---|---|---|---|---|---|---|
| | | 유대감 | | 시간공유 | | 커뮤니케이션 | | 위기대처능력 | | 전체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사회인구학적 변인 | 결혼지속연수 | -.01 | -.15** | - | - | - | - | - | - | - | - |
| | 월평균가계총소득 | .05 | .10* | .06 | .10* | .07 | .12* | .08 | .13* | .06 | .13* |
| | 학력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여부 | - | - | - | - | - | - | - | - | - | - |
| 심리적 변인 | 내외통제성 | .33 | .24*** | .30 | .21*** | .25 | .18** | .38 | .26*** | .32 | .28*** |
| | 사회적지지 | .47 | .39*** | .55 | .43*** | .42 | .34*** | .40 | .30*** | .46 | .45*** |
| 상수 | | 1.05 | | .05 | | .92 | | .50 | | .66 | |
| Adjusted R2 | | .34 | | .31 | | .22 | | .24 | | .40 | |
| F | | 39.50*** | | 45.54*** | | 29.15*** | | 33.17*** | | 68.07*** | |

*p < .05 **p < .01 ***p < .001

정에서 강화되어가는 것이니만큼 주위 환경에서의 물적, 인적환경 요소는 가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변혁적리더십의 자질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2) 배경변인이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배경변인이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사회적지지(β = .45), 내외통제성(β = .28), 월평균가계총소득(β = .13)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0%였다. 즉 사회적지지가 충분하고 내외통제성이 높으며 월평균가계총소득이 높을 때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은 높아진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특히 사회적지지가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만큼 주변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특성이 가정생활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주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지정도에 따라 가정생활건강성은 달라진다고 한 선행연구들(김경아, 2003; 어은주, 1996; Antonucci, 1990; House & Robert, 1985)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여성리더의 경우 사교성이나 타인과의 인간관계망 능력, 공동체 생활능력 등이 취약(김경아, 이신자, 강형철, 2004)한 만큼 사회적지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내외통제성이 높을수록 가정생활건강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와 김경아(2004)의 연구결과, 내외통제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이 높다는 최정혜(2005)의 연구를 접목시켜 볼 때, 내외통제성은 가정생활건강성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내외통제성의 특성이 셀프 리더십을 발달시킬 수 있듯이(이소희, 2004), 내외통제성이 강한 기혼여성은 자신의 생활을 잘 조절하고 순응함과 동시에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는 개인의 안정과 가족관계 및 심리적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Voydanoff & Donnelly, 1989) 적절한 소득수준이 충족될 때 가족의 안녕이 보장되므로 가계의 월평균총소득은 가정생활건강성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4.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기혼여성의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라 가정생활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변혁적리더십은 가정생활건강성 모든 영역에서 일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변혁적리더십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이 높은 집단의 기혼여성이 변혁적리더십이 낮은 집단의 기혼여성보다 가정생활건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리더십스타일과 가정의 안녕을 연구한 Galbraith (2000)의 연구를 지지할 뿐 아니라 조직 내 리더가 변혁적리더십을 행할 때 조직원들의 응집력과 동기부여 및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서난원, 2002; Kreitner & Kinicki, 1992)와도 일맥상통하는 결

<표 5>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 독립변인 | | | 가정생활건강성 | | | | | | | | | |
|---|---|---|---|---|---|---|---|---|---|---|---|---|
| | | | 유대감 | | 시간공유 | | 커뮤니케이션 | | 위기대처능력 | | 전체 | |
| | | | M | D | M | D | M | D | M | D | M | D |
|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 카리스마 | 상 | 4.32 | A | 4.36 | A | 3.98 | A | 3.96 | A | 4.16 | A |
| | | 중 | 3.91 | B | 3.80 | B | 3.62 | B | 3.60 | B | 3.73 | B |
| | | 하 | 3.50 | C | 3.23 | C | 3.25 | C | 3.22 | C | 3.30 | C |
| | | F | 89.17*** | | 250.29*** | | 58.24*** | | 53.55*** | | 184.89*** | |
| | 개별적 고려 | 상 | 4.28 | A | 4.25 | A | 3.94 | A | 3.94 | A | 4.10 | A |
| | | 중 | 3.91 | B | 3.77 | B | 3.69 | B | 3.60 | B | 3.74 | B |
| | | 하 | 3.58 | C | 3.41 | C | 3.23 | C | 3.27 | C | 3.38 | C |
| | | F | 56.43*** | | 77.43*** | | 56.07*** | | 39.84*** | | 98.68*** | |
| | 지적 자극 | 상 | 4.14 | A | 4.06 | A | 3.83 | A | 3.81 | A | 3.96 | A |
| | | 중 | 3.83 | B | 3.76 | B | 3.59 | B | 3.61 | B | 3.70 | B |
| | | 하 | 3.62 | C | 3.38 | C | 3.27 | C | 3.18 | C | 3.36 | C |
| | | F | 28.42*** | | 42.77*** | | 30.07*** | | 32.95*** | | 53.99*** | |
| | 전체 | 상 | 4.30 | A | 4.30 | A | 3.94 | A | 3.89 | A | 4.11 | A |
| | | 중 | 3.90 | B | 3.80 | B | 3.69 | B | 3.71 | B | 3.77 | B |
| | | 하 | 3.54 | C | 3.30 | C | 3.21 | C | 3.17 | C | 3.30 | C |
| | | F | 75.11*** | | 154.68*** | | 66.63*** | | 56.67*** | | 155.95*** | |

*p < .05 **p < .01 ***p < .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과이다. 즉 변혁적리더십은 조직원들에게 리더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서적 몰입을 하게하고 결과적으로 기대를 초월한 성과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게 한다는 선행연구(Avolio & Bass, 1995; Bass, 1985)에 비추어 볼 때,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의 발휘는 가족원들 개개인의 욕구를 초월하여 가정의 비전성취를 위해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동기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의 긍정적 문화창출에 기여한다. 특히 하위영역 중 변혁적리더십의 핵심을 이루는 카리스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기혼여성의 카리스마가 높을 경우 가족원들과의 신뢰가 깊어지고 가정의 비전을 위한 노력도 같이 상향됨으로써 가정생활건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기혼여성이 가정을 경영함에 있어 변혁적리더십의 함양은 가정생활의 만족과 건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희생만이 강요되던 전근대적인 주부상과 달리 21세기 가정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질임이 입증되었다. 활력이 있고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부부관계의 성장을 고무하는 가족을 건강한 가정이라 규정한 Hennon(1985)의 정의처럼, 기혼여성의 변혁적리더십의 발휘는 곧 가족원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슈퍼 리더십의 역량을 지니는 근간이 됨을 입증하였다.

### 5.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처음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때 월평균가계총소득(β = .23), 결혼지속연수(-β = .16)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7%(p < .001)에 머물렀다. 즉 기혼여성의 월평균가계총소득이 높고, 결혼지속연수가 낮을수록 가정생활건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가계총소득과 관련하여, 기혼여성이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충족할 경우 재정적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지속연수가 길수록 가정생활건강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최근 황혼이혼 등 전반적인 이혼율의 상승률(통계청, 2006)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2단계에서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β = .45)와 내외통제성(β = .28), 월평균가계총소득(β = .06)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0%(p < .001)로 높아졌다. 즉 새롭게 추가된 심리적 변인 중 주변의 사회적지지와 내외통제성 및 월평균가계총소득이 높을 때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가정생활건강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기

<표 6>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위계적 회귀분석

| 독립변인 \ 단계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
| | | b | β | b | β | b | β |
| 사회인구학적 변인 | 결혼지속연수 | -.01 | -.16* | - | - | -.00 | -.06* |
| | 월평균가계총소득 | .11 | .23*** | .06 | .13* | .03 | .07* |
| | 학력 | - | - | - | - | - | - |
| | 취업여부 | - | - | - | - | - | - |
| 심리적 변인 | 내외통제성 | - | - | .32 | .28*** | .08 | .07* |
| | 사회적지지 | - | - | .46 | .45*** | .17 | .16*** |
|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 카리스마 | - | - | - | - | .55 | .58*** |
| | 개별적고려 | - | - | - | - | .15 | .17*** |
| | 지적자극 | - | - | - | - | - | - |
| 상수 | | 3.5 | | .66 | | .12 | |
| Adjusted R2 | | .07 | | .40 | | .74 | |
| F 및 유의도 | | 11.73*** | | 68.07*** | | 142.50*** | |

*p < .05 ***p < .001

혼여성 스스로 내외통제성을 지니고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를 얻으며 경제적 자원이 충족할 때 건강한 가정생활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 3단계에서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변인 중 지적자극을 제외한 카리스마(β = .58)와 개별적고려(β = .17) 및 심리적 변인인 사회적지지(β = .16), 내외통제성(β = .07)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월평균가계총소득(β = .07), 결혼지속연수(β = -.06) 등이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4%(p < .001)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기혼여성의 변혁적리더십 변인 중 카리스마가 있고 가족에 대한 개별적 고려를 하며, 주위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높고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성을 지님과 동시에 경제적 여건이 양호하고 결혼지속연수가 낮을수록 자신의 가정생활을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변혁적리더십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리더십 함양은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가족원을 한방향정렬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건강가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흡입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리더십은 일반 교육처럼 단시간 내에 일방적인 지식의 축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기혼여성이 주도적으로 비전을 명료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족원의 공유가치를 한방향정렬시키고자 하는 가정경영전략이 실천화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기혼여성의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역량은 양호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하위영역별로는 카리스마, 개별적고려, 지적자극의 순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이 가정의 비전을 창조하고 가족을 섬기는 카리스마 리더십의 자질을 잘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내외통제성과 사회적지지 등으로, 기혼여성 스스로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지니고 주위로부터의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할 때 리더십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생활건강성은 전체적으로 중간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비교적 기혼여성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가계총소득, 내외통제성, 사회적지지가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건강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내 변혁적리더십 수준과 가정생활건강성 간의 관련성이 매우 높게 확인되었으며, 또한 모든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변혁적리더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주부의 리더십 역량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초석일 뿐 아니라 가정의 건강성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전략이며 가정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자질임을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리더십의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리더십 측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가부장제 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한국 가정 내에서 수용 가능한 전방향의 리더십 개념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정리더십의 개념이 구체화될 수 있는 청소년 및 기혼남성을 포함한 다양한 생애주기별 척도개발과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범화되고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혼여성의 교육요구도에 근거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혼여성의 리더십 역량이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정리더십 교육의 확대를 통해 리더십의 개념이 특정 리더나 조직의 차원뿐 아니라 일반 가정 속에서 갖추어야 할 가정관리자의 새로운 자질로서 받아들여질 때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긍정적인 가정문화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기혼여성의 리더십과 가정생활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변인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심리적 변인에 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리더십은 개인이 지닌 가시적인 환경 보다는 개인이 갖고 있는 내외통제성 같은 셀프 리더십과 사회적지지 같은 관계 리더십의 역량이 더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개인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지지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기혼여성의 리더십 역량 함양이 가능하다고 전망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리더십 측정은 자기기입식 설문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리더십의 특성상 자기인식과 아울러 타인의 평가 또한 중요한 영역이므로 차후에는 기혼여성 본인 외에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관리자의 리더십 수준을 파악하는 다면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신규(2001). 리더십 유형에 대한 종업원의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배제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인탁(1995). 교육조직에서 변혁지향적 지도성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3(4), 1-24.

김경아(2003). 청소년의 예절수행 세대전이 및 가정생활건강성-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아(2005). 청소년 자녀와 부모를 위한 가정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숙명리더십연구-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2, 31-60.

김경아, 이신자, 강형철(2004). 여성 리더의 리더십 역량 강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19, 83-104.

김나비,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기혼 취업여성의 결혼생활 공평성인지도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 연구-. 교문사.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2004). http://www.encyber.com/index.html

문홍규(2002). 호텔관리자의 리더십, 종업원의 직무태도 및 직무특성의 관계. 동의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미석, 김경아(2005). 기혼여성의 변혁적리더십에 대한 척도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박원숙(2002). 리더십 · 임파워먼트 · 간호업무성과간의 관계.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박혜숙(1994). 변환적 및 거래적 리더십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난원(2002). 여성공무원의 변혁적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선희, 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어은주(1996). 한국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고찰-자녀 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오정옥(1999). 가족의 건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4(2), 153-172.

유영주, 오윤자, 이정연(1998). **건강가족연구**-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교문사.

이소희(2004). 청소년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개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이정우, 김경아(2002).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79-95.

이정우, 김경아(2004).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2), 27-42.

이홍화(2004).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정생활건강성에 미

치는 영향.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통계청(2006). *2005 한국의 사회지표*.

황윤경(1996).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onucci, T. C. (1990).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T. Antonucci(ed.),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California: Academic Press.

Avolio, B. J., Bass, B. M., & Jung, D. I. (1999). Re-examining the components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using the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2,* 441-462.

Bass, B. M. (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Bass, B. M. (1990). From tran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arning to share the vision, *Organizational Dynamics, 18,* 19-31.

Bass, B. M., & Avolio, B. J. (1990a).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evelopment: Manual for the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Bass, B. M., & Avolio. B. J. (1990b). From tran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arning to share the vision, *Organizational Dynamics, 18.* 19-31.

Bass, B. M., & B, J. Avolio. (1992).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Short form 6S*. Binghamton, NY: Center for Leadership Studies. 재인용. 김남현, 김정원 역(2001). 리더십. 경문사.

Bass, B. M., & B, J. Avolio. (1993).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 response to critiques*, In M. M. Chemers, & R. Ayman(Eds.), 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erspectives and directions(pp. 49-8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Bass, B. M., & B, J. Avolio. (1995). *The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5X-Short)*. Mind Garden, Redwood City, CA.

Bennis, W. G., & Nanus, B. (1985). *Leaders: The strategies for taking charge*, New York: Harper and Row.

Brigman, K. M. L., Schons, J., & Stinnett, N. (1986). Strengths of families in a society under stress: A study of strong families in Iraq. *Family Perspective, 20.* 61-73.

Bryman, A. (1992). *Charisma and leadership in Organizations*. London, Sage.

Burns, J. M. (1978). *Leadership*, New York: Harper and Row.

Byles, J., Byrne, C., Boyle, M. H., & Offord, D. R. (1988). Ontario child health stud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general functioning subscale of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Family Process, 27(1),* 97-104.

Downton, J. V. (1973). *Rebel leadership: Commitment and charisma in the revolutionary process*. The Free Press, New York.

Galbraith, K. A. (2000). *Family Leadership: Constructing and testing a theoretical model of family well-being*. The University of Utah State University. Ph.D.

Gardner, W. L., & Avolio, B. J. (1998) The charismatic relationship: A dramaturgical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1).* 32-58.

Hater, J. J., & Bass, B. M. (1988). Superiors' evaluations and subordinates perceptions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3.* 695-702.

House, J. S., & Robert, K.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heldon cohen & S. Leonard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Inc.

Jung D. I., & Avolio, B. J. (2000). Opening the black box: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mediating effects of trust and value congruence on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ur, 21,* 949-964.

Kouzes, J. M., & Posner B. Z. (1995). *The Leadership challenge*. Jossey-Bass: San Francisco.

Kreitner, R., & Kinicki. A. (1992). *Organizational behavior. Homewood*, CA: Irwin.

Olson, D. H., & DeFrain, J. (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lishing Company.

Otto, H. A. (1962). What is a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1.

Podsakoff, P. M., MacKenzie, S. B., Moorman, R. H., & Fetter, R. (1990). Transformational leader behaviors and their effects on followers' trust in leader,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Leadership Quarterly, 1(2),* 107-142.

Pratt, L. V. (1976). *Family structure and effective health behavior: The energized family.* Boston: Houghton Mifflin.

Shamir, B., House, R. J., & Arthur, M. B. (1993), The Motivational effects of charismatic leadership: A self-concept based theory, *Organization Science, 4,* 1-17.

Stinnett, N., & DeFrain, J. (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New York: Berkley.

Stinnett, N., & Sauer, K. H. (1977).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 11(4),* 3-11.

Voydanoff, P., & Donnelly, B. W. (1989).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 style: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

Walker, R. G. (1986). Wellsprings of managerial leaderships, *The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27(2),* 14-16.

Xie, X. (1994),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government employe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Yukl, G. (2002). *Leadership in organizations,* 5th ed. New York: Prentice-Hall.

Zimmerman, T. S., & Fetch, R. J. (1994). Family ranching farming: A consensus management model to improve family functioning and decrease work stress. *Family Relations, 43.*

(2006년 4월 30일 접수, 2006년 7월 7일 채택)